

서식7

지방행정의 달인 후보자 공적 요약서

선발분야	소속	직급	성명	근속기간
일반행정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디지털정보담당관	지방전산8급	권영 權英	4년 6월
공적내용				
I. 공적요지 협업과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한 AI 업무편람, 서무실록 개발 (체 계 화) 서무업무의 체계적 분류 및 표준화 및 누리집화 (공공데이터) OPEN API 활용 및 서비스 개발로 행정 효율 향상 (AI의 접목) 기타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래밍 개발 병행 (확 장 성) 서무에서 일반 행정업무 실록으로의 확장 가능성 제시 서무실록 페이지 주소 : https://officemanager.oopy.io				
II. 공적사항				
1. 디지털 행정혁신의 시작, 온라인 업무편람 ‘서무실록’ 서무실록은 개별 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협업 기반의 ‘실시간 온라인 업무편람’입니다. 24시간 응답하는 AI 검색 기능과 공공데이터 OPEN API 연계를 통해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며, 실질적인 행정 효율화를 실현합니다.				
2. 공직사회 병폐에서 탄생한 기록의 다짐과 개발 2020년, 인수인계 없이 군산시청에 첫 출근한 신규 공무원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막막함을 겪었습니다.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병폐로 인식했고, 특히 고용노동부 신규 공무원의 ‘업무 물어볼 곳 없다..’ 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식을 접한 뒤, 다음 사람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업무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기록하기 시작하자 동료들이 동참하며 개인의 기록은 부서 전체의 지식 자산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비공식적 인수인계 관행을 개선하고자, 행정의 기초인 ‘서무(庶務)’와 역사의 기록 ‘실록(實錄)’을 합쳐 ‘서무실록’이라는 체계적인 기록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행정의 비효율과 고통을 기록을 통해 막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공적내용

3. 통계, 익명의 찬사가 보여주는 성공

2024년 11월, '서무실록'이 내부망에 공개되자 “적극행정 대상, 포상금 지급해라, 복 받으실거예요“이라는 등 동료들의 폭발적인 격려와 공감을 받으며, 개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지식 공유의 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무실록은 군산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누적 방문자 6,000명, 활성 사용자 2,000여 명을 기록했으며, 특히 정기인사 시기에는 접속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규 담당자들의 지침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현장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2025 AI·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에 선발되어 “기술은 동료를 향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기술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 서무실록이 보여주는 혁신과 확장

작은 도시 군산에서 시작된 업무편람 '서무실록'은 2024년 군산시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으며, 보이지 않는 내부 업무 방식 개선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이 혁신은 외부 서비스 경쟁 대신, 조직 내부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의 노하우를 '공유' 자산으로 전환하고 ▲정보를 '통제' 대신 '신뢰' 기반으로 운영하며 ▲시민을 향하던 AI 기술을 '내부 동료' 지원에 활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동료 공무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먼저 얻었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되어 2025년 6월 다른 지자체에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서무실록은 “원래 다 그렇다“는 관성에 맞서 더 나은 방식을 증명한 사례로,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